

## 【 4 】 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

의 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3. 17

발 의 자 : 우순자 의원 외 6인

### □ 주 문

- 우리시는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경기북부지역으로 서울과 연접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규제 법령으로 개발 및 부동산 거래가 억제되고 있는 지역으로 2005년부터 토지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 또한 그동안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며 지가가 급격히 하향조정 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 □ 건의내용

- 양주시 지가가 급격히 하향조정 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건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 임 : 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건의문 1부. 끝.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건의문

2009. 3.

양 주 시 의 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건의문

우순자 의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님, 경기도 김문수지사님!

우리시는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2002. 11. 20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시 전체 면적 310.21km<sup>2</sup>중 97%인 299.98km<sup>2</sup>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북부지역으로 서울과 연접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100%), 군사시설보호구역(49.1%), 개발제한구역(25.4%) 등 각종규제 법령으로 개발 및 부동산 거래가 억제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2005년부터 토지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77.21km<sup>2</sup>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중첩된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역으로 실거주자 및 실소유자 이외에는 매수자가 없어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입니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회천지구 및 광석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지역은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토지보상이 진행중이며 각종 행위 제한으로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입니다.

기타 지역은 대부분 택지개발에서 제외된 구시가지, 농림지역 및 산간지역 등으로 토지거래량이 거의 없고, 개발가능 토지도 적으며 신도시 녹지공간축으로 보존되어야 할 토지로서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임은 명확합니다.

국토해양부조사 지가변동률도 지난 해 11월부터는 마이너스 변동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역 고시 이후 더욱 더 거래량 및 지가 변동률이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금융 불안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며 지가가 급격히

하향조정 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토지거래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된 업종 대부분이 휴업·폐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침체될 대로 침체된 지역경제로 주민들의 어려움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 법률로 인하여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던 우리시에 대하여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09년 3월 3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2009. 3 . .

수 신 : 양주시의회의장

제 목 : 양주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 임 : 양주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해제 건의문 1부. 끝.

발 의 자 우 순 자 (인)

의원 외 6 인

( 찬 성 자 서 명 별 첨 )

## 찬 성 자 서 명

의 원 명	날 인 (서명)	비 고
원대식		
박종식		
박재일		
장재훈		
홍범표		
이종호		
우순자		